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재보험료 인상으로 보험업계 타격 불가피

- 대재해 빈발로 인한 글로벌 재보험사의 실적악화와 허리케인 피해증가 전망 등으로 미국 내 재보험료 인상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플로리다 지역 보험사들의 타격이 예상됨.
 - 최근 발생한 일본과 뉴질랜드의 대지진, 호주의 홍수 등으로 재보험업계는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, 1/4분기 보험금 청구액이 올 한해 예상치를 상회하는 보험사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됨.
 - 또한 대재해 예측기관인 RMS가 올 여름 허리케인으로 인한 미 내륙지역의 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.
 - MunichRe가 지난주 재보험료 인상계획을 발표했으며, 영국의 Hiscox, Amlin, 버뮤다의 Lancashire 등도 미국 내 대재해 관련 재보험료를 10% 가량 인상할 것으로 알려짐.
 - 플로리다 지역 보험사들은 대부분 허리케인 시즌을 앞둔 6~7월 경 재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재보험료 인상으로 2011년 실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.

-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MunichRe와 SwissRe는 대재해로 인해 1/4분기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, 1/4분기 대재해로 인한 재보험사의 손실은 전세계적으로 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.
 - MunichRe와 SwissRe는 1/4분기 각각 13억 6천 달러, 6억 6천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, 버뮤다 지역 재보험사들도 6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.
 - AM Best는 대부분의 재보험사들이 연초에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2011년 전체적으로도 흑자를 기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.
 - 한편 SwissRe는 2011년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자연재해 손실을 기록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,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던 보험료율이 상승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재보험 영업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함.

(Financial Times 등, 5/15)